

89년도 메이저의 경영실적

미국의 6대 메이저들은 지난해 석유 및 가스가 격의 강세로 상류부문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하류부문에서는 정도는 각기 다르지만 고전을

면치 못하였다. 석유가격이 상승했으나, 추가수익이 소비자로부터 즉시 회수되지 못하였으며, 그 결과 6개 메이저 모두 수익이 감소하였다.

1989년도 메이저 경영실적

(단위 : 백만달러)

	순 이익	석유매장량 (백만배럴)	석유생산량 (천b/d)	원유처리량 (천b/d)	제품판매량 (천b/d)	천연가스 매장량	천연가스 판매량
아 모 코							
1988	2063	2798	809	944	1120	19487	3155
1989	1610	2746	815	960	1222	18860	3636
증감률(%)	-22	-2	+1	+2	+9	-3	+15
B P							
1988	2154	7369	1550	1924	2576	11813	1062
1989	3500	7035	1412	1944	2663	11444	1510
증감률(%)	+62	-5	-9	+1	+3	-3	+42
세 브 른							
1988	1768	3317	1309	1007	2410	10710	2455
1989	251	3179	1308	1893	2436	10190	2960
증감률(%)	-86	-4	-	-1	+1	-5	+21
엑 슨							
1988	5260	7468	1919	3042	4306	38760	5192
1989	3510	7467	1804	3299	4625	41835	5385
증감률(%)	-33	-	-6	+8	+7	+8	+4
모 빌							
1988	2087	3104	735	1653	2525	19814	4278
1989	1809	3155	761	1757	2595	19588	4541
증감률(%)	-13	+2	+4	+6	+3	-1	+6
옥 시 덴 탈							
1988	302	748	308	-	-	3263	n. a.
1989	285	772	264	-	-	3230	n. n.
증감률(%)	-6	+3	-14	-	-	-1	-
로알더치셀							
1988	5234	8839	1763	3379	5030	38687	5993
1989	6539	9496	1851	3388	4940	40356	5832
증감률(%)	+25	+7	+5	-	-2	+4	-3
텍 사 코							
1988	1304	2992	990	1877	2787	7238	3315
1989	2413	2687	833	1356	2382	6002	3221
증감률(%)	+85	-10	-16	-28	-15	-17	-3

BP와 로얄 더치 셀 등 유럽계 2 메이저는 달러화에 대한 파운드貨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순익증가를 시현하였다. 이러한 실적호조에 힘입어 로얄 더치 셀은 지난해 세계 최대 석유기업임을 확인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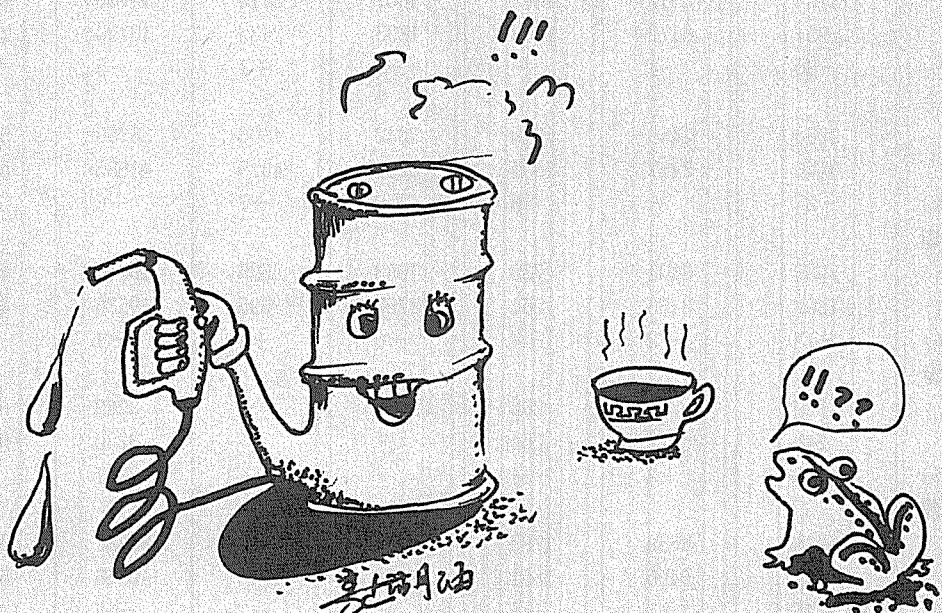
'87년부터 시작되어 '88년에 궤도에 오른 메이저들의 수익회복추세는 미국계 메이저의 경우 '89년 들어와 추세가 반전되었다. '88년에 원유가격 약세에 힘입어 하류부문 및 화학부문에서 순익이 증가하였으나, '89년에는 원유가격이 견조하여 특히 미국의 하류부문 마진이 크게 압박을 받았다. 5개 미국계 메이저들은 지난해 미국내 하류부문에서 '88년에 비해 60% 순익감소를 겪었으며, 해외부문에서는 20%미만의 순익감소를

겪었다.

2개 유럽계 메이저의 미국내 하류부문 사업은 BP 아메리카 정제시설의 높은 마진과 활발한 마케팅 활동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신장을 가져오는 데 그쳤다. 그러나 BP의 하류부문 총영업순익은 '88년대비 5%감소를 보였다. 셀은 미국내 하류부문에서는 거의 29% 순익감소를 겪었으나, 미국외 지역에서는 48%의 순익증가를 시현하였다.

메이저 모두는 정제효율개선을 위한 상당한 자본투자 지출증대를 포함하여 자본 및 개발투자지출을 증대시킬 계획을 밝히고 있다. ♣

휘발유 부가세 신설 검토



어쩐지 휘발유 1되 값이
커피반잔 값도 안되더라!